

SKT의 5G·VR 기술... 도심서 북극 오로라 만나다

Q 르포 | 서울 시청앞 'ICT 이글루' 가보니

무안경 360도 VR극장부터
로보틱스 등 활용 이색체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관심

서울 시청앞 광장에 알래스카에서 불법한 이글루가 생겼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기술(ICT) 이글루'를 만들고 내부에 5G 서비스를 설치해 오가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 ICT 이글루는 SK텔레콤의 지원을 받아 대한스키협회와 한국실업빙상경기연맹이 운영한다.

지난 9일 찾은 ICT이글루페스티벌에는 오전 10시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름 23m의 대형 돔과 12m의 소형 돔으로 이루어져 있는 ICT이글루에서는 무안경 360도 VR 극장과 함께 가상현실(VR)·로보틱스·타임슬라이스 기술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체험관은 스노우 바운스(Snow Bounce)다. 가상마을을 습격한 몬스터로부터 마을을

지켜내는 게임이다.

ICT이글루페스티벌 관계자는 "평일보다 주말에 ICT 이글루를 찾는 인원이 2~3배 정도 많다"며 "대부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와 체험해 보고 간다"고 설명했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ICT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이다.

ICT이글루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이와 부모만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다는 회사원 김 모(35)씨는 "예약 없이도 볼 수 있는 무안경 360도 VR 영상도 재밌다"면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자주 들르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경 360도 VR 영상은 상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5G 네트워크를 통해 에어돔 내부 천장에 투사된다. 특히 무안경 360도 VR 영상은 VR기기를 착용했을 때보다 어지럼증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페스티벌의 관전 포인트는 스노우볼 파이트다. 스노우볼 파이트는 몬스터로부터 성을 지켜내는 판타지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스노우볼 파이트를 체



(왼쪽부터) ICT이글루페스티벌 입구와 에어돔 천장에 투사된 무안경 360도 VR 오로라 영상



/나유리 인턴기자

험한 김 모(28)씨는 "장갑과 조끼가 눈덩이를 던지고 맞는 느낌을 더 생생하게 전해준다"고 설명했다. VR 기술과 햅틱 기술을 사용한 스노우볼 파이트는 햅틱 장갑과 조끼를 착용해 실제 눈덩이를 던지고 맞는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체험자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들도 체험자들의 표정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밖에 이글루페스티벌은 윈터 판타지, 스노우 드리프트, 아이스 점프, 스노우 레이싱을 운영하고 있다. 윈터 판타지

는 무안경 VR기술로 북극을 탐험할 수 있으며, 아이스 점프에서는 타임 슬라이스 기술을 활용한 360도 점프사진 촬영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날 현장에 약을 하기위해 줄을 서 있던 몇 명은 예약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예약인원이 많아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 1시간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을 이용해 ICT를 체험해보고 싶었던 오미영(32)씨는 "현장예약만 할 수 있어서 점심시간에 부랴부랴 나와

서 예약했는데 1시간 이후로 예약시간이 잡혀 체험을 못할 것 같다"며 "인터넷 예약이 되지 않아 직장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ICT이글루페스티벌 운영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평일은 10시~21시 30분, 토요일과 공휴일은 10시~13시까지 운영된다. 예약은 현장에서 가능하며,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체험시간은 코너별로 3~5분 정도다.

/나유리 인턴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가상공간서 아이스하키... 옴니뷰로 5G 속도 체감

'평창 올림픽=5G 올림픽'

KT, 세계 최초 5G시범서비스
SKT·LGU+도 적극 홍보 나서
모바일 통해 방송·VOD서비스
네이버 등 포털도 생중계 동참

평창 동계올림픽 막이 올랐다. 'ICT 올림픽'이라고 선언된 만큼 이번 올림픽은 기술의 향연이 이어져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국내 통신업체들은 올림픽을 맞은 전 세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여 이동통신사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5G는 최대 다운로드 속도 20기가비피에스(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 100메가비피에스(Mbps)로 롱텀에볼루션(LTE)보다 10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1기가바이트(GB) 영상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평창 올림픽 맞아 5G 홍보 각축전

11일 IT업계에 따르면 KT는 평창 공식 후원사 중 유일한 통신사로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평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인다.

KT는 5G 시범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



네이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서비스.



KT 평창 5G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5G 준비 완료'를 기념하는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텔코리아 권명숙 사장, 강원도 정만호 부지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이희범 조직위원장, KT 황창규 회장,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KT

난해 11월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에 5G 기술을 연구·실증하는 전초기지인 '평창 5G 센터'를 개소, 운영을 개시했다. 평창 5G 센터에는 KT가 글로벌 제조사들과 함께 개발한 '5G-시그(SIG) 규격' 기지국과 안테나 등 각종 5G 네트워크 장비와 단말이 구축돼 있다.

평창 대관령 '의자바라마을'에는 '평창 5G 빌리지'를 개소해 5G 등 네트워크와 증강·혼합현실(AR·MR), 홀로그램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시켜 방문객들에게 관광 안내, 특산품 판매, 드론 체험 등을 제공한다.

지난 9일부터 운영하는 약 250평 규모의 '광화문 KT 라이브사이트'에서는 평창

이나 강릉에 가지 않더라도 5G 단말에서 옴니뷰와 같은 실감형 서비스로 5G 속도를 체감할 수 있고, 가상공간에서 아이스하키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수의 모바일 카메라로 촬영해 5G로 다각도 영상을 받아보는 '타임슬라이스'를 체험할 수 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올림픽 시기에 맞춰 5G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25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 2개의 돔 형태 체험관인 'ICT 이글루'를 설치했다. 방문객들은 오로라를 무안경 가상현실(VR) 기술로 감상하고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 설산 질주를 경험하는 등 다양한 5G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 5G 체험관을 개관해 5G 알리기에 나섰다.

◆'손 안의 모바일'로 올림픽 즐긴다

경기장을 찾지 않고 TV를 보지 않는 관람객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올림픽 생중계를 볼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자사 인터넷TV(IPTV)를 활용해 모바일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KT는 '올레tv 모바일'을 통해 평창 올림픽 경기 생중계와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도 평창 올림픽 특집 서비스를 마련해 경기 생중계, 종목 별, 일차 별 명장면, 한국선수 출전 경기 및 금

메달 경기, 메달 순위를 제공한다. 또 동계올림픽 관련 방송, 영화 콘텐츠 등을 고객이 쉽게 원하는 방식으로 시청하도록 다양한 메뉴를 설정했다. 올림픽 기간 동안은 옥수수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시청할 때 LTE 데이터 통화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막판에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권 협상이 타결돼 '비디오포털'에서 올림픽 실시간 중계와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네이버·카카오서도 올림픽 본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도 올림픽 생중계에 동참한다.

네이버는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특집 페이지를 제공하고, 9일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는 네이버 스포츠와 네이버TV에서 생중계한다. 네이버의 인공지능(AI) 플랫폼 '클로바' 애플리케이션(앱)과 클로바가 탑재된 스마트스피커에서도 선수 검색, 경기 일정, 순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는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동계올림픽 전 경기를 카카오톡 채널과 다음 스포츠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와 함께 MBC와 손잡고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미니' 전용 음성 콘텐츠를 준비했다. 6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올림픽 관련 명령어를 음성으로 입력하면, MBC에서 카카오톡만을 위해 제작한 음성 브리핑 콘텐츠가 제공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줄 News

정책·사회

▲ 공공기관과 시중 은행들의 채용비리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직장인 중 절반이 채용비리를 목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으로 개체수가 4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 김치냉장고 업체로 유명한 대우위니아를 거느린 대우그룹이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며 국내 3위 가전업체로 올라섰다.

▲ CJ대한통운이 국내 도입 해양유전개발용 크레인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하역작업에 성공했다. 크레인은 무게만 3718톤(t)에 달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 이후 공식 일정 없이 경영 복귀를 위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

▲ NH농협금융이 지난해 순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보험 자회사인 농협손보와 생명은 몇 짝은 웃음을 짓고 있다.

▲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유통&라이프

▲ 담배, 도시락을 사는 곳으로 익숙했던 편의점에서 화장품, 반려동물용품 등 '비주류' 상품 매출도 늘고 있다.

▲ 출근길에 아침 식사를 포기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마시는 아침 대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갤럭시 노트8 올림픽 에디션'으로 감동 전하다

지난 9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전세계 올림픽 선수들이 '갤럭시 노트8 올림픽 에디션'으로 개막식의 감동을 생생하게 촬영해 가족, 친구, 팬들과 공유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무선 통신 및 컴퓨팅 분야 공식 파트너 삼성전자는 4000여 대의 '갤럭시 노트8 올림픽 에디션'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공해 올림픽 참가 선수단이 올림픽의 특별한 경험을 담을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